

제100회 총회, '3개 교단' 합동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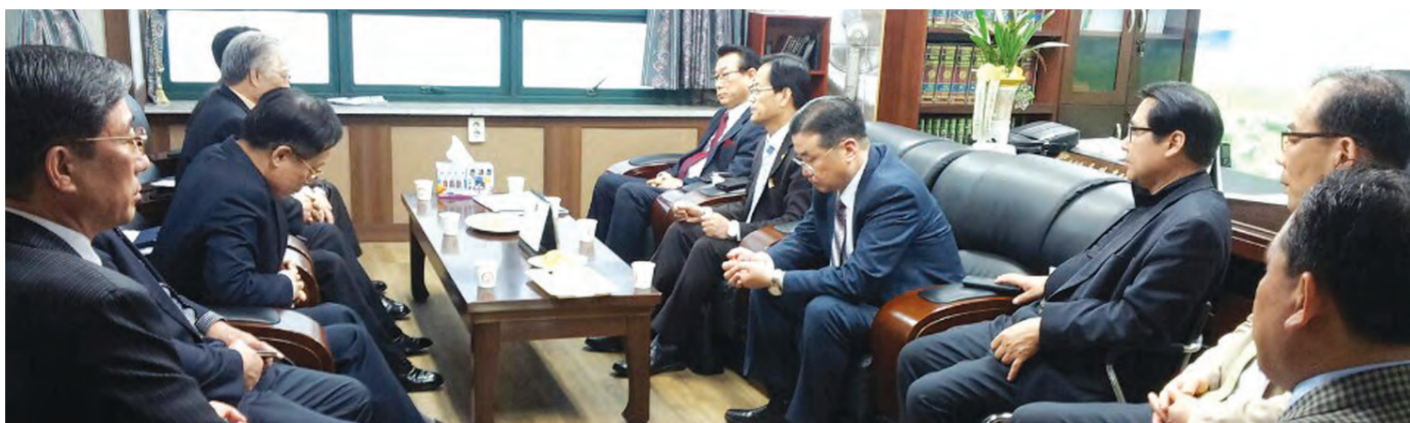


종로측과 합동에 대해 논의 한 후 기념촬영



송천동측과 합동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제100회 총회를 앞두고 교단간의 합동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2015년 5월 8일 종로측(총회장 류현욱 목사) 총회 사무실에서 교단 합동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총회에서는 총회장 박용목사, 서기 하금식목사, 조성환목사, 조영식목사가 참여하였고 개역 종로측에서는 총회장 류현욱목사, 이봉기목사, 임종환목사, 박만진목사 등이 참여하였다. 두 교단은 총회 합동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록 여러 상황속에서 헤어졌지만 다시 합쳐야 한다는 인식에는 모두가 동의하였다. 회의 분위기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합동에 대한 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다. 하지만 큰 이견은 없었고 계속 만남을 이어가면서 합동을 이루어가자는데 합의하였다. 이로써 종로측과의 합동에는 큰 걸림돌이나 장애물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합동을 하자는데는 원칙적으로 모두가 찬성하지만 조금더 신중하게 서로 의견을 모아가면서 일을 진행해가자고 하였다.



또한 2015.5.26. 개신총회 사무실에서 개역 송천동측(총회장 안성삼목사)과 만남을 가졌다. 개신총회에서는 총회장 박용목사, 서기 하금식목사, 조성환목사, 조영식목사가 참여하였고 개역 송천동 측에서는 황인찬목사, 조세영목사, 박영길목사가 참여하였다. 이 모임의 분위기 또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2010년 개혁총회가 나

누어지게 된 후 다시 형제들이 함께 하자는데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었고 합동에는 모두가 찬성하는 것으로 동의하였다. 하지만 서로 분위기를 탐색하는 수준에 그쳤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 송천동측에서는 개신총회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였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합동을 위한 모임을 세 교단이 함께 가지기로 하였다. 모임의 시점은 교역자 하기

수양회가 모두 끝난 후 종로측과 의견을 교환한 후 세 교단이 함께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이로써 개신총회는 세교단과 연계적으로 합동을 위한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교단 합동에 대한 공감대를 서로 확인하고 교단간의 이견에 대해서는 서로 좁혀가기로 하면서 총회 합동이 가시화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슈분석 2면)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 정기노회 성료

경기노회(구 경기1노회)는 2015.4.13(월) 중앙중앙교회당에서 제184회 노회를 개최하였다. 부노회장 최종태목사의 인도로 노회장 김순모 목사가 설교하였다. 2부에서는 증경노회장 박만수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을 진행하였다. 이어진 회무처리에서는 신규 임원체제와 준목인허식과 각부보고등 회무처리가 이어졌다. 신일 교회 가입은 사도들의 한국교

회 이석인 목사, 장성교회 김운기목사가 가입하였다. 노회가 주관한 목사후보생교시에 합격하여 노회에가입한 자들은 안효숙, 김장섭, 이서영, 김순선, 김경록, 김귀에, 전재현, 이유성, 차영주, 최윤경, 성영욱, 윤종민, 공도화, 김성배, 소경애, 조성우, 김재균 이상 16명이다. 장로고시에는 옥창석, 한중민, 이상순, 옥장연, 김장모가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또한 준목인허식을

가졌다. 준목인허자로는 최세일, 김재균, 김상남, 윤종수, 안효숙, 김장섭, 이서영, 김순선, 김경록, 김귀에, 전재현, 이유성, 윤종민, 조성우, 김성배 이상 15명이다. 특히 경기노회는 노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규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경기노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왔지만 경기노회로 환원하여 노회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교역자 하기 수양회 개최

22일부터 24일까지 속초 켄싱턴 리조트서



개신총회 제1회 전국 교역자·부부 하기 수양회가 6월22일(월)부터~24일(수)까지 2박 3일간 '내 주안에 거주하라(요 15:7)'는 주제로 강원도 속초 켄싱턴 리조트 설악비치에서 열린다. 행사를 준비한다. 참석대상으로 교역자 부부, 총회 및 노회임원, 장로 등이며 참가비용은 1인당 10만원(당일 12만원)이며 부부1실은 28만원이다.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개인 및 단체 등록을 받으며 참가비 입금은 외환은행 630-009626-971로 입금하면 된다. 이번 하기 수양회는 개신총회가 하나되는 매우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총회 산하 교역자들이 참여하여 좋은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개신총회 제1회 전국 교역자·부부 하기 수양회가 모두 끝난 후 종로측과 의견을 교환한 후 세 교단이 함께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이로써 개신총회는 세교단과 연계적으로 합동을 위한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교단 합동에 대한 공감대를 서로 확인하고 교단간의 이견에 대해서는 서로 좁혀가기로 하면서 총회 합동이 가시화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슈분석 2면)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은혜 가운데 마쳐



지난 2015년 4.28(화) 중앙 중앙교회당에서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장의 설교와 손석태 개신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의 강의를 있었으며 뜨겁게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총회가 이제 걸음마를 떼는 관계로 여러 가지가 미흡하지만 2개월도 되지 않아 규모를 갖추어

가는 모습을 확인하며 총회의 발전과 개신대학원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록 참석인원은 기대와 달리 조금 저조하였지만 신생교단의 한계를 딛고 힘차게 달려가자는 하나의 공감대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관련 기사 및 사진 3면)

2015 전국 교역자 부부 하기수양회

◎ 일 시 : 2015년 6월 22일(월)~24(수)

◎ 장 소 : 켄싱턴리조트 설악비치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동해대로 4800)

△ 대 상 : 교역자(목사, 준목, 전도사)부부, 총회 및 노회임원, 기타

△ 등록비 : 1인당 10만원(당일 12만원)

부부1실 28만원(당일 30만원)

△ 등록기간 :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개인 및 단체 등록

△ 계좌 : 외환은행 630-009626-971 예금주:대한예수교장로회 개신총회
입금시 교회명과 참가자 성함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총회 사무실 전화 02-3674-7008~9



총회장 박용 목사 (순직한 교회)



목사부총회장 박찬권 목사 (하나교회)



정로부총회장 김왕수 정로 (중앙중앙교회)



서기 하금식 목사 (예전교회)



부서기 김순모 목사 (동서울교회)



회록서기 백명강 목사 (덕암교회)



부회록서기 나건용 목사 (희망의 교회)



회계 김명수 정로 (중앙중앙교회)



부회계 조계연 정로 (세안암교회)



총무 조영식 목사 (반석교회)



사무국장 최승범 목사 (세안암교회)

사설

개신총회와 합동

합동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과거의 한 형태들이었던 개혁인들이 다시 하나 되어 보자고 힘을 모으는 상황에 있다. 벌써 4차례의 모임이 있었다. 특별히 합의서를 교환하거나 구체적인 이수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합동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나누고 서로 긍정하는 모양새다.

사실상 합동을 위한 걸림돌은 없다. 모두 이해하고 무조건 합동하자고 하면 된다.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 보면 신학적인 문제가 없는 같은 형제간의 합동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합동하고 다시 곧 헤어지는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문제이다. 개혁교단 30년 역사 가운데 교단 합동과 분열, 이합저합이 수 없이 있어 왔다. 합동했다가 다시 분리되는 일은 수없이 많이 있다. 개신총회는 그동안의 분열과 분리를 지양하고 우리의 정신인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적 정체성을 공감하는 동문들이 중심이 되는 새롭고 참신한 총회를 만들어보자는 데 한 마음이 되어 장립한 총회이다.

개신총회가 장립한 첫 개월되지 않았지만 총회의 외형적인 면에서 어떤 중형교단 부립지 않을 규모를 단기간에 갖추어 왔다. 총회 헌법과 규칙을 제정하고, 젊고 개혁적이고 참신한 총회 임원을 구성하였다.

개혁교단중에서 가장 번듯한 사무실을 갖추고, 총회 홈페이지, 개신신문 등 이렇게 짧은 시간안에 총회의 규모를 갖추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개신총회는 교계의 주목과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다. 그러나 노회의 규모면에서 약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최근에는 합동운동직으로 많은

종교적인 인사들이 관망하게 되면서 영입 또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합동을 위하여 개신총회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요즈음의 분위기는 합동으로 인하여 개신총회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상황이 될 지라도 합동에 대한 태세를 막을 수 없다. 개혁교단은 개신대학원대학교 출신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로인해 신학교 출신배경에 따라 파당이 조성되고 교권이 조성되는 파벌주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단이 합동하면 이러한 문제로 다시 예전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개신총회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속적으로 합동을 위해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개신총회는 아직 총회 회원 노회 수와 교회사수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미래가 주목되는 총회이고 젊은 개혁적인 제도와 법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개신총회만의 장점을 합동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하여 합동하더라도 개신총회의 정신을 살리는 총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른 총회에서

우리는 개신총회와 합동하는 것을 말이지 합동이지 그냥 영입의 모양새만 갖추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법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

합동은 대체이고 합동은 이루어야 한다. 그동안 분리와 분열의 과정속에서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은 사람도 있다. 오직 합동을 위한 합동을 생각하여 개신총회의 교단적 정체성과 교단정신을 훼손하고 완전히 말소되어 버리는 그러한 총회 합동이 되지 않도록 합동위원들이 잘 살펴주기를 기대한다.

동성에 축제·봉은사역 지정 반대한다

서울시의 동성에 축제 서울관광 사육 허락과 봉은사역 역명지정을 반대한다. 최근에 동성예자들은 그들의 모임을 서울 서울관광장에서 가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장소허락을 요청하여 받았다.

오는 9일부터 쿼터문화축제를 서울시 청광장에서 개최한다. 그들은 슬로건으로 사랑하라, 저항하라를 주제를 정했다고 한다. 쿼터는 동성이라는 말이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말 씀하고 있다. 동성에는 저해물을 봉은목회 하는 것으로서 창조원리에 위배되는 일이다. 최근에 동성에는 미국교회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었다. 미국의 자유주의 장로교(P.C.U.S.A)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인 미국장로교(PCUSA)가, 교회 내에서 게이와 레즈비언 등 동성예자들의 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을 승인하였다.

인권을 가중하여 성경의 가장근본적인 원리도 부인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에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반대하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한기총 임원단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찾아가 황의라고 한국교회 연합 회장인 양병희 목사가 1인시위에 나선 것 또한 한국교계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9호선 코엑스역을 봉은사역으로 고치는데 동의해주었다. 이러한 일 역시 불교에 지나치게 특혜를 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람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 코엑스역 대신에 봉은사역으로 명칭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인 것이다. 이 역시 고쳐져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책임있는 행정을 기대한다.

총회 임원회 소식

5·6차 임원회 진행... 합동 관련 논의 중점 이뤄져

개신총회 제5차 임원회가 5.4(월) 오전 11:00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열렸다. 총회장 박용목사, 박찬권목사, 진영수장로, 하급식목사, 김순모목사, 백영강목사, 나건용목사, 김영수장로, 조계연장로, 조영식목사들이 참석하였다. 1부 예배와 2부 회의로 진행되었다. 개회예배에서 총회장 박용목사의 사회로 부총회장 박찬권목사로 기도제 한 후 최부처리에 들어갔다. 서기 하급식목사가 축사사항을 보고하니 14명중 11명이 참석하여 성수가 되므로 임원회를 총회장 박용목사가 개회함을 선언하였다. 먼저 타 개혁교단과의 연합으로 합동을 위해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개신총회는 아직 총회 회원 노회 수와 교회사수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미래가 주목되는 총회이고 젊은 개혁적인 제도와 법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개신총회만의 장점을 합동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하여 합동하더라도 개신총회의 정신을 살리는 총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른 총회에서

무 조영식 목사가 지난 4.15일 흥동 힐튼 호텔에서 송전동 개혁(총회장 안성삼)과 합동위원회를 가졌으며 다음으로 4.24 개혁 총로측(총회장 류현옥목사)과 합동을 위한 모임을 가졌음을 보고하였다. 양 총회와 합동을 위한 모임은 가졌으나 특별히 아직 결의된 사항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리한다면 먼저 송전동측(개혁)과 모임에서는 무조건 합동하지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개혁자 수양회연합으로 가지지는 의견으로 개혁 송전동측에서 먼저 여수에 있는 유케슬 호텔(여수)에서 이번 여름 교역자 수양회를 진행하는 중에 있는바 개신총회도 함께 같이 참여 하였으면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총로측과의 모임에서는 여성 안수문제가 이슈화가 되어 여성안수문제는 여성에

대한 총대 자격은 없지만 노회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였다. 총회의 명칭은 개혁으로 주장하였으며 정년은 75세로 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준목고시는 계속해서 존속하도록 하자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총회 임원구성에 대하여서는 한 총회가 소외됨 없이 잘 구성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총회 합동을 위한 모임은 급하게 추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하여 타 교단과의 합동 모임 소위원회로 박용목사, 하급식목사, 조성환목사, 총무는 직원으로 참석하기로 하였다. 합동위원회를 마치고 임원회를 숙회하여 총회장 박용 목사가 합동위원회 결의사항을 서기 수양회를 진행하는 중에 있는바 개신총회도 함께 같이 참여 하였으면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총로측과의 모임에서는 여성 안수문제가 이슈화가 되어 여성안수문제는 여성에

이어서 회계 보고를 회계 김영수 장로가 보고하니 백영강 목사가 유인물로 받기로 동의하고 진영수 장로의 제청으로 받기로 하였다. 백영강 목사가 회계를 동원 김순모 목사가 제청하고 백영강목사의 기도로 폐회하였다.

제6차 임원회(2015. 5.12.화)는 5.12(화)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제6차 임원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장 박용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임원회에서는 하기 교역자 수양회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었다. 서기 하급식목사가 지난해 임원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난 후 다른 교단과의 연합수련회는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교역자 하기 수련회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장소는 비용의 문제를 고려하여 강원도쪽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고 세부적인 일정과 강사와 장소문제는 정책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였다.

총회 합동 이슈 분석

- 1차모임 2015.4.15 개혁(총회장 안성삼목사) 흥동 힐튼 호텔
- 2차모임 2015.4.24 개혁(총회장 류현옥목사) 개혁총회 사무실(종로)
- 3차모임 2015.5.8 개혁(총회장 류현옥목사) 개신총회 사무실
- 4차모임 2015.5.26 개혁(총회장 안성삼목사) 개신총회 사무실

총회는 개혁측 송전동측과 종로측과 아래와 같이 4차례 걸쳐 두 교단과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면서 합동에 대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중에 있다. 양 교단과 두 번에 걸쳐 만났지만 특별히 합의서를 교환하거나 합동을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서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합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합동을 이루어가자는 의견을 나누는 상황이다.

원래 위의 3개의 총회는 하나의 총회이며 원뿌리가 같은 총회이기에 총회를 합동하는데 있어 걸림돌은 없는 상황이다. 2010년 소망교회에서 열린 제95회총회에서 박원 식목사 문제로 교단이 분열되었고 또 2011년 류광수목사 영입문제로 교단이 분열되었다. 이어서 개혁총회는 다시 분열과 합동을 반복하였고 개신대학원대학교측에서는 2014년 말에 개혁(류광수목사)교단과 결별하고 새로운 개신총회를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이제 2015년 제100회총회를 앞두고 옛 형제들이 서로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하고 3개교단이 합동위원회를 조직하고 대화를 계속해가는 상황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벌써 4-5년의 시간이 지나가기에 3개 교단간에 새로운 특색과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헌법도 제정하게 되었다. 송전동 개혁측은 올해에 헌법 제정 전권위원회에서 새롭고 헌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종로측 개혁도 헌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교단이 분열되기전 헌법인 2009년 헌법을 기준으로 새롭게 논의를 이어 가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합동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면 합동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하에서 어떤 점이 합동의 이슈가 되는 지 살펴보자.

1. 교단의 명칭 문제

원래 교단의 명칭은 개혁(Reformed)이다. 1985년도 개혁교단이 새롭게 출범하고 난 후 개혁교단의 부침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상처도 많았고 영광도 있었다. 그렇지만 개신총회가 출범하면서 개혁신학의 정체성을 세우고 개신대학원대학교의 신학적 정체성과 동문식을 뜨겁게 공유하며 개신을 사랑하는 교단의 특색을 새롭게 하자는 취지에서 '개혁'이라는 이름을 과감히 버리고 '합신' '고신' '교단'처럼 '개신' 교단을 창립하였다. 그런데 출범한지 겨우 몇 개월만에 다시 '개혁'으로 돌아갈 것인지 '개신'을 고수하며 타 교단을 설득해 나갈 지 고민해야 한다. 타 교단과 합동을 위한 모임에서 합동위원들이 이러한 '개신' 교단의 정체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년제 문제

개신총회는 목회정년제는 폐지하여 '목사는 담임한 교회를 종신토록 시무한다.' 라는 규정하여 목회 정년은 없다. 다만 공직정년은 만 70세로 정하여 만70세가 넘으면 총회의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다. 이렇게 함으로서 교회 사정에 따라 정년은 제한하지 않지만 총회 정치 민첩을 정년을 두어 총회를 개혁하고 새롭게 하였다. 개신총회의 대표적인 개혁제도이다. 그러나 개혁 송전동 측에서는 정년제를 75세로 제한하고 있고 종로측 역시 75세 정년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양 교단 역시 개신총회의 공직정년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목회정년 또한 정년제 폐지에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여성안수문제

여성안수는 여성목사와 여성장로로 구분된다. 개신총회와 개혁측 송전동측은 여성목사와 여성장로는 안수하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종로측은 조금 보수적으로 유지되어 여성목사 안수는 허용되 여성장로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 역시 논의를 해야 하였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총회인준신학교 문제

각 교단은 총회 인준신학교가 각각 다르다. 개신총회는 유일신학교를 개신대학원대학교만 인정하고 있다. 개신대학원대학교가 아닌 타 신학교 졸업자는 목사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혁송전동 측은 뚜렷한 인준신학교가 없는 상황이고 종로측은 전북 비울신학교(전 전북 개혁신학연구원)를 총회 신학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 또한 총회 인준신학교는 개신대학원대학교로 단일화하는데 큰 이견이 없다. 그동안 개혁교단의 역사는 바로 개신대학원대학교가 유일한 인준신학교 역할을 해왔기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5. 준목고시 문제

현재 개신총회는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졸업하면 총회에서 주관하는 준목고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준목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신대학원대학교를 대과없이 졸업한 자는 준목의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각 노회에서 목사의 자격을 부여할 때 그 절차를 엄격하게 하여 목사도 임직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총회에서 준목고시를 거치면 부담이 너무 크고 총회 고시부가 큰 기득권을 갖게되고 실제적인 준목의 자격을 평가하는 객관성은 갖추지 못한채 총회 고시부의 권한만을 유지하는 부작용을 낳아 온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총회 준목고시만을 위한 총회 고시부를 폐지



하는 제도 개선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타 교단들은 여전히 이 제도를 두고 있기에 이 제도의 장점과 개혁정신을 충분히 잘 설명해야 할 것이다.

6. 개신대학원대학교 후원 주일 지정 문제

개신총회는 개신대학원대학교 후원 주일을 정하여 후원하기로 규칙에 정하였다. 이는 개혁교단 제 86회, 88총회 결의 사항가운데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적극 후원하기로 하다는 결의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교단간의 합동회의에서 개신총회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설득하고 명문화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7. 총대의 지역 문제

개신총회는 임직 3년이상된 목사와 장로는 모두 총대가 되어 총회에 참석하여 회원권을 가지도록 했다. 이는 미국 장로교(P.C.A)도 이렇게 실시하여 총회 신하 모든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참여하여 총회의 형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개신총회도 이렇게 총회 신하 모든 목회자와 장로들이 함께 참여하여 총회원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총회의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총회원 모두의 의사가 반영되는 건강한 총회가 되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다. 개혁 송전동측도 2014년에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했으나 오히려 총대들의 권위 상실 문제, 참석률 저조, 상비부 조직구성 난항 문제등으로 총대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되었다. 종로측 역시 10교회당 총대 1인씩 총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총대제도를 그대로 고수한다면 각 노회별로 총대는 하나의 기득권이자 권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참신하고 젊은 새로운 일꾼들은 발굴하지도 못하고 소위 기득권이 있고 힘 있고 정치력있는 어르신들,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총회의 발전과 개혁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신총회의 규칙인 임직 3년이상 규정의 조금 양보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합동회의 과정에서 총대의 문호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개방하는 쪽으로 개혁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총대들의 권위가 상실되는 것보다 오히려 많은 총대들의 참석으로 총회의 권위가 높아지고 참석률 또한 높아질 것이고 상비부 조직 또한 대표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구성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인다.

8. 총회와 신하조직 구성문제와 총회 사무국의 인사, 행정, 재정문제

어떻게 보면 총회를 합동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다. 현재 각 총회는 임원을 모두 구성하고 있고 독립된 신문사와 총회 사무국과 사무실을 두고 있다. 총회를 합동하는데 있어 합동총회 총회장을 누를 세우고 임원들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총무는 누가 할 것인가? 의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임원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금씩 희생하고 양보하면 순차적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 본다. 그렇지만 합동과정에서 우리세력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문을 요구하고 지나치게 위압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안될 것이다. 서로 조금씩 희생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총회 사무국의 인사, 행정, 재정문제일 것이다. 현재 각 교단의 사무국은 총무와 사무국장장 사무간사가 있다. 세 개의 사무국을 통합하는데 반드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다 함께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재정문제이다. 각 교단마다 상황은 다를테지만 만일 한 교단이 큰 부채를 떠 안고 있다면 그 부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3교단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진솔하게 한 교단의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9. 총회 헌법의 개정 및 수정의 문제

헌법과 규칙, 임원선거의 방식, 준목고시 실시문제등 여러 상이한 문제가 많이 있다. 우선적으로 총회 헌법은 교단 합동전에 모두 수정하여 합동총회에서 승인을 얻는 것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문제가 되는 큰 이슈들을 정리하고 일치점을 이룬 다음 총회 헌법을 수정하고 일치하여 하나의 교단, 하나의 헌법을 합동총회에서 통과 시킴으로서 효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합동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회를 두어 맡기는 것은 불필요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고 3교단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다.

이와같이 합동을 하는데 있어 여러 이슈화가 될 만한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잘 살피고 3개교단 모두가 만족할만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면 합동은 잘 진행되어질 것이다.

총회주일(세례교인헌금)현황

임금순/단위 원

번호	교회	담임목사	금액	노회
1	중앙중앙교회	조성환	5,000,000	경기노회
2	대은교회	곽철상	90,000	"
3	임미누엘교회	임규철	360,000	"
4	사랑의말씀교회	배상태	130,000	영남노회
5	반석교회	조영식	120,000	경기노회
6	순직한국교회	박 용	1,000,000	수도노회
7	풍성한교회	양민환	30,000	전북동노회
8	이호교회	문경욱	10,000	경기노회
9	늘성교회	박만수	110,000	"
10	목령장로교회	강창오	100,000	인천광역시노회
11	은혜동산교회	서만식	150,000	여수노회
12	행신한빛교회	김한빛	100,000	수도노회
13	동서울교회	김순모	150,000	경기노회
14	새인양교회	최승범	200,000	"
15	목양교회	김진일	300,000	"
16	하나교회	박찬권	500,000	"
17	예정교회	정현욱	400,000	"
18	예전교회	하급식	160,000	전북동노회
19	해상교회	고민주	50,000	경기노회
20	창대교회	김영을	200,000	수도노회
21	희망의교회	나건용	100,000	경원노회
22	심성중앙교회	정대성	200,000	수도노회
23	선교교회	정덕순	50,000	전북동노회
계			9,510,000	

개신신문

Th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총회장 : 박 용 발행인 : 조성환 편집국장 : 고태성 인쇄인 : 이정자

등록번호 : 서울 다 10958 / 등록일 : 2015년 3월 5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서울특별시 중로구 연지동 1-1 여전도회관 604호 / 대표전화 : 02)3674-7008 팩 스 : 02)3674-7010

개신신문 계좌 : 수협 154-67-019920 예금주 (발행인 조성환)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뜨겁게 한마음으로 기도하다”

지난 4.28일(화) 오후 2시 중앙중앙교회 담임에서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함께 기도합시다(행 1:14)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마음으로 교회와 총회와 국가,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기 하급식목사의 사회로 부총회장 박찬관목사가 기도하고 회록서기 박영강목사가 성경봉독을 맡아 했고 이어 총회장 박용목사가 요한복음 12:12-16절을 본문으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곧 메시아이자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생각한 것처럼 개신총회의 영광 역시 사람들이 아직 잘 알아주지 못하지만 개신총회가 잘 발전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하며 “총회원 모두가 개신총회 발전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부총회장 진용수 장로가 봉헌기도를 하였고 특별기도를 진행하였다. 특별 기도에는 수도노회장 정대성목사가 대통령과 나라의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인천광역시노회장 장대수 목사가 총회 산하 노회와 지교회 부흥 발전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강원노회장 이경호 목사가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어 총회장 박용목사가 개신총회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순모 목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개신대학원대학교 명예 이사장 조경대 목사가 축도함으로써 1부 기도회를 마쳤다.

2부 특강에서는 부회록서기 나건용목사 사회로 개신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 손석태박사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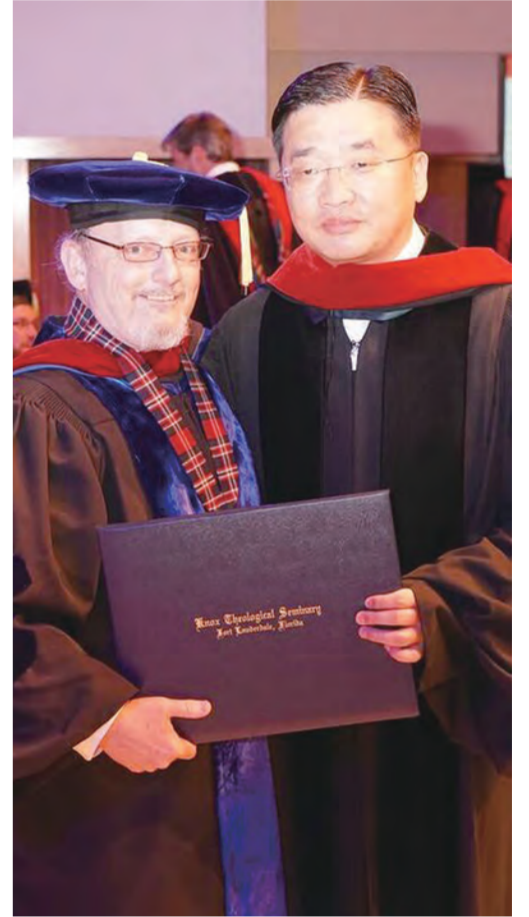
3부에서는 총무 조영식목사가 총회 현황을 보고하였다. 보고후에는 다시 특별 기도시간을 가졌다. 경기노회장 최종대 목사가 총회발전과 개신신문을 위하여 서울북노회장 조광관목사가 국가발전과 정치, 경제 성장을 위하여 경기노회 부노회장 한영복장로가 교단 대 통합을 위하여 전북노회 양민관목사가 한국교회 성장을 위하여 기도한 후 경원노회 안중은 목사가 식사기도를 한 후 모든 기도회를 마쳤다.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총회원들이 한마음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개신총회 발전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총회의 기쁨을 세우고 총회 발전을 위한 폭넓은 공감대를 확정한 시간이 되었다. 다만 참석인원이 조금은 저조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번은 총회 지도부가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도회 후 식사는 중앙중앙교회(담회장 조성환목사)가 갈비탕을 제공하였다.



개신대학원대학교 이사장 조성환 목사 미국 낙스신학대학교 명예신학박사 학위 수여



본보의 발행인이며 중앙중앙교회 담임목사이며 개신대학원대학교 이사장 조성환목사가 2015.5.15. 오후 7시 미국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에 위치한 코랄리지 교회(설립자 제임스 케네디목사)에서 진행된 낙스 신학대학교 제25회 졸업식에서 명예신학박사(HONARY DOCTOR OF DIVINITY)학위를 수여받았다. 조성환 목사는 아버지인 조경대 목사에 이어 부자가 명예신학박사를 수여받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낙스 신학교(Knox Theological Seminary)는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신학교, 리폼드(Reformed) 신학교와 더불어 미국 보수주의 3대 신학교 가운데 하나로 세계적으로 높은 명성을 갖고 있다. 미국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천리티 투데이(Christianity Today)」의 조사에서 「교리적 건전성」 부문에서 최고로 선정됐던 가장 순수한 개혁주의 신학교로 인정받고 있다. 「나는 왜 믿는가」 등 저서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설립자 제임스 케네디(James Kennedy)목사는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신도 복음 전도 훈련’을 통해 ‘국제 전도 폭발운동’을 일으킨 세계적인 목회자였다. 케네디 목사는 1959년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Fort Lauderdale)에 성도 45명으로 코럴 리지 장로교회(Coral Ridge Presbyterian Church)를 설립한 뒤 전도폭발운동을 통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시켰다. 지금도 미국을 대표하는 몇 개 교회 중 하나로 꼽힌다. 케네디 목사는 우리 시대에 다시 종교개혁의 불을 붙여 전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려는 비전을 실행하고자 후학 양성을 위해 1989년 낙스 신학교를 설립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Ft Lauderdale)에 위치한 낙스 신학교는 총장 라머슨(Samuel Lamerson)교수를 비롯하여 설교학 교수로 유명한 브라이언 체플(Bryan Chapell), 조직신학에 존



프레임(John Frame)등 개혁주의진영에서 매우 유명한 교수들이 포진하여 강의하고 있고 미국 신학교내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개신대학원대학교는 낙스신학교와 공동 목회학 박사 학위 과정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143명의 목회학박사를 배출하였다. 이사장인 조성환목사의 학위 수여를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고 양교간에 상호 발전을 증진하는데 큰 가교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로 장립 및 안수집사·권사 임직 예비

일 시 : 2015년 6월 6일(토) 오전 11시
장 소 : 서울 하나교회 본당

오직 예수그리스도
only Jesus christ



기적과 축복을 심어주는 교회!!
- 자유, 정의 진리 -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편 81:10)

대한예수교 하나교회

서울 노원구 덕릉로 115길 9(상계3동 101-82)
H·P 010-4170-0923 (박다윗(찬권)목사) TEL 02)936-7622,7522
H·P 010-5582-7522 (옥드함 사모)

장로임직자



안수집사 임직자



권사임직자



개혁주의 성경신학 ③



손석태
철학박사, 개신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

43.3. 이스라엘과 교제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후 바로 이스라엘에게 “나를 위해 성소를 지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고 (<kwth ytnkwv vdqm yl wcuw), 내가 네게 보여줄 성막의 모형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형에 따라 너희가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출 25:8-9)고 명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I may dwell in their midst) 성소(sanctuary)를 만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성소를 다 만들었을 때,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The cloud covered the tent of meeting, and the glory of the Lord filled the tabernacle. duwm lha-ta /nuh skyw

/kvnh-ta alm hwhy dwtkw)라고 기록하고 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시어 모세와 함께 하시던 모습이 그대로 이 성막 위에 재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교제, 함께 하심이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그 신부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기를 명하시고, 성막이 완성되자 이제 그 성막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이후 여호와께서는 그의 신부에게 안장된 거처를 마련해주시는 데 바로 그가 약속하셨던 “쫓과 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광야에서 헤메던 때 사용했던 성막을 대신하여 다윗과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 봉헌한 것입니다. 이때에 다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 위에 임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을 가득 채웠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 의 전을 가득 채웠으므로, 제사장들이 구름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왕상 8:10,11)

여호와 성전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

하시고, 이스라엘과 교제하시는 관계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아비 다윗처럼 여호와와 율례와 법규를 잘 지키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의 왕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지만 만일 그의 자손들이 여호와에게서 돌아서서 여호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숭배하고 섬기면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리고, 그의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한 이 전이라도 던져 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왕상 9:7).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맺은 언약에 충성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 성전을 떠나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거하신다고 믿었고, 성전에 나아가 제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가득한 영광과 임재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정착시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동거하시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동거 가운데 이스라엘은 쫓과 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43.4.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맺은 약속에 충실하지 못하였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서민에 이르기까지 이방신을 섬기고, 사회는 온갖 불의와 부정과 부패로 오염되어 여호와와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특히 아합 왕은 아람왕 르신과 북방국의 बे가가 군사동맹을 맺고 그를 권력하려고 했을 때 그의 종주인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앗시리아의 디글렛 벨레셋에게 돈을 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와 맺은 언약의 배반이고 반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사 7:19). 그러나 그는 믿지 않았습니 다. 비록 아합 이후 히스기야와 요시아 같은 왕들이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에 힘쓰고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리려고 노력했지만 여호와의 진노를 풀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다시 이방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가 주셨던 쫓과 풀이 흐르는 땅은 이방인에게 넘겨 주셨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후 여호와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환상가운데 보았습니다. 그가 이 환상을 본 날자를 에스겔 8:1에 보면 제 6년 6월 5일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 학자들이 의견대로 주전 592년,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 되기 이전입니다. 여호와 의 손이 그의 머리털을 한 움큼 잡아 그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려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여러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그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네가 보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여기서 심히 역겨운 일들을 행하여 나를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한다.”(겔 8:6)고 말씀하십니다. 여호

와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그 역겹고 혐오스러운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에 심판을 퍼부으시고(9:1-11), 11장에는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성전 문지방을 나와 바퀴달린 그룹을 타시고 땅으로부터 떠올랐습니다(10:18-19). 여호와 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더불어 여호와와 영광도 그의 성전을 떠나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버려진 고아 처럼, 포식자에게 던져진 짐승 신체가 된 것입니다.

43.5.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을 떠나시지만 다신 그의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다시 그의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그의 말씀으로 다시 살리시고(겔 37:1-10), 그들에게 새언약을 주셔서 그들의 고토에 돌아오게 하시고, 다윗을 영원한 목자요, 왕으로 세워 영영토록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영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내 처소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것을 열국이 알 것이다.”(겔 37:24-28)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위상승배 때문에 성전을 떠나셨던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와 그의 처소를 그의 백성 가운데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관계 회복을 말씀 하신 것입니다.

43.5.1. 성육하신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은 결국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의 장막을 펴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이요 임재라는 것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요 1:14)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ejskh/wsen”를 번역한 것인데 이는 “살다”(live), “거하다”(dwell), 그리고 “장막을 펴다”(to spread a tent)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성경에 사용되는 “사켄”(skn, 장막을 펴다)으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그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사야의 예언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43.5.2. 신랑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오셔서 가나 혼인 잔치에 가서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심으로, 신적

관능을 가진 신랑, 곧 구약의 이스라엘의 신랑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며, “이 성전을 허물 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삼일 만에 세울 것이다.”(요 2:19)라고 선언하십니다. 마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신랑과 신부의 언약을 맺고 함께 동거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신 것과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이 여호와-신랑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신랑으로서 그의 신부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성전을 헐라고 명 하시면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의 성전으로 세우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묻습니다(고전 3:16). 구약성경의 성전에 임하시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전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생명이 결탁된 몸의 머리와 지체,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말씀하심은 이들의 불가분리의 연합 관계가 얼마나 유기적이며 견고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지상 복음 사역은 결국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그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그의 성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요 15:4)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요 15:5)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겐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 말씀은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입니다.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는 연합 관계를 갖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같이 있게 하시고 세상 창조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창조 전에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제자들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귄 교제 이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하신 궁극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자”라고 말하고(롬 6:3-5), 우리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롬 8:9), 곧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고전 8:17)이라고 가르칩니다.

45.3.3. 새 예루살렘의 어린 양의 혼인예식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어린양 혼인예식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린양 예수께서 그의 성도들과 함께 결혼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 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랑임을 감추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군천사들의 합창 속에서 그의 성대한 혼인 예식을 거행하십니다. 성도들과의 완전하고 영원한 연합관계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3절은 다음과 같이 이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마지막에 있을 일은 “함께 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인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21:7에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는 언약공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대미는 21-22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그 안에는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감을 이루고,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나뭇잎은 열국 백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었습니 다. 그런데 거기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 문이다.”(계 21:22). 그리고 그곳에는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께서 친히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결국 예언의 회복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하는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이 연합관계는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이고, 신앙이고,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성경 안에서는 여러 다양한 은유를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언급되었지만 그 외에도 왕과 백성, 용사와 전사, 목자와 양 등의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이 관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적 삶이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입니다.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화의 단계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한 생활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n with Christ)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끝)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적한교회**




담임목사 박 용

예 배 안 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 주일오전 : 오전 11시
- 주일오후 : 오후 2시
- 수요일예배 : 오후 8시
- 금요철야 : 오후 8시
- 유·초등부 : 오전 9시
- 중·고등부 : 오전 9시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18 3층
02) 571-0304 / HP 010-4210-5932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 전 교 회**




담임목사 하 금 식

예 배 안 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 주일 1부 : 1부 오전 9시 30분, 2부 오전 11시
- 주일 2부 : 오전 11시, 3부 오후 2시
- 수요일예배 : 1부 오후 4시, 2부 오후 7시
- 금요일예배 : 오후 8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하72길 29-41
063) 274-7732 / HP 010-6651-77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서울교회**



담임목사 김 순 모

예 배 안 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30분
- 주일 1부 : 오전 7시
- 주일 2부 : 오전 11시
- 수요일예배 : 오후 7시 30분
- 금요철야 : 오후 9시
- 유·초등부 : 오전 9시 30분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 나길 38
02) 429-0927, 3426-0549 /HP 010-3532-02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덕 암 교 회**




담임목사 백 영 강

예 배 안 내

- 새벽예배 오전 5시
- 주일오전 오전 11시
- 수요일예배 오후 7시
- 금요일예배 오후 9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64-22
HP 010-8810-9182

대한예수교 장로회 **희망의교회**




담임목사 나 건 용

예 배 안 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 주일오전 : 오전 11시
- 주일오후 : 오후 2시
- 주중매일 : 오후 4시 30분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4길 36
HP 010-7686-7004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 임 규 철

예 배 안 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 주일오전 : 오전 11시
- 주일오후 : 오후 7시
- 수요일예배 : 오후 8시
- 금요일예배 : 오후 9시
- 유·초등부 : 오후 2시

서울시 성북구 회랑로 32길 21
02) 3295-2504 / HP 010-5205-3587

개신대학원대학교 제2회 목회 세미나

목회를 말한다 ①



배창돈 목사
개신대교과회

이 강의는 5.12(화) 개신대에서 배창돈 목사가 강의한 것을 녹취하여 정리한 것이다.

저는 제자훈련을 지금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면 참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한 교회는 제자가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평신도가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의 제자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교회에 주님의 제자가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을 위하여 함께 사역하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바울같은 경우에는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여러 교회가 있는데 나름대로 생각해보십시오

나도 힘을 합쳐서 동역할 수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되는가? 믿고 맡길 수 있으며 함께할 수 있는 평신도가 몇 명이 있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삼으라 한 사도바울의 동역자는 많았습니다. 우리도 사도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교회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건물을 크게 짓고 교회 프로그램도 좋고 직분자 많아도 제자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자훈련 막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는 제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의 300명 정도 목사님들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동역자가 몇 명이 됩니까?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한참 진지하게 생각하시다가 하는 얘기가 한명 있습니다고 합니다. 300교인 중 1명이라 그래서 마음속 생각 그 분이 누굽니까 묻지 않고 속으로 사모님인가보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방법으로 목회

야 합니다.

목회가 무엇인가요? 목회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를 통해 개선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8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훈련 하셨습니다. 이광에서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도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광에서 목회의 전문가요 예수님만이 목회 전문가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목회 잘하는분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제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제자라는 말이 사라지지만 대신에 완전한자라는 의미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제자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가라고 하는게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할 장소로 가라! 전도대상자에게 가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전도해야 한다입니다.

아는 분이 제자훈련 세미나를 받고 제자훈련에 미쳤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동안 왜 안보였나니깐 그 동안 제자훈련하느라 바빠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자훈련을 다 시켜서 더이상 할 사람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 시키는데 제자는요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해야 잠깐 제자 훈련입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오해하고 제자훈련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책입니다.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전도하고 훈련 양육하고 같이해야 합니다.

전도가 빠지면 제자훈련이 안된다는것입니다. 제자훈련하는 교회도 그 교회안에 보면 전도가 얼마나 많이 되었는가를 봅니다. 그에 따라서 그 교회의 질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도들의 75%는 전도되어 들어온 새신자들입니다.

지금은 고민하는게 주님이 완전 신도시처럼 되었습니다. 처음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지금 신도시가 되어서 제 마음이 기뻐야 하는데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제자훈련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안되는 교회는 교회 건강도가 떨어지는 교회입니다.

제자훈련 할 때 제일 힘든 분들 교회에서도 오래된 분들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비본질적인것으로 씨름하고 싸웁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부임해서 강대상을 바꾸고 싶은 7년동안 강대상을 못바꿨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보면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더욱 완고합니다. 요새는 말씀 불려면 텔레비전을 보고 인터넷을 켜면 수많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은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생각도 닮고 행동도 닮아갑니다. 사도바울은 주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본받는 자가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열매 맺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열매가 많습니다.

사도바울은 주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열매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쉽게 가르쳐주셨는데 잘 깨닫지 못합니다. 설교도 쉽게 할려고 강의도 쉽게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풍성한 열매는 그가 제자였음을 나타내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제자는 반드시 목회자만이 제자가 아닙니다. 평신도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사역의 엄청난 열매를 보면 그 사역에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보면 사도바울이 자랑하고 싶어 못견디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제자 제자훈련하고 나니까 그런분들이 많아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자훈련하는 평신도들이 많아요. 저는 예수를 3대째 믿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안에서 교인들 많이 싸우고 다루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 믿고 그런걸 보면서 사람이 안 바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건 제자훈련을 시키니깐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제자훈련 한다고 다 바뀌는거 아니지만 안될때는 이유가 있어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남자들이 바뀌고 제가 맨 첫 번째 제자훈련을 1기 할때인데 제자훈련 하는걸 사탄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도 공격도 많은데 모집을 하는데 모집이 안되는거예요 광고해도 직분자들이 다 안하는 것입니다. 어떤분은 제자훈련 받았습다 받은거 잘 잊었는데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제자훈련은 강남에서 하는거지 평택시골에서는 하는거 아니냐고 하면서 반대하였습니다.

제자훈련 하면서 첫 번째 제자훈련 받은 사람은 제 아니입니다. 말 잘듣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자매가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교 졸업했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부부싸움을 너무 많이하는 자매였습니다. 또 다른 자매는 물장사하는 자매인데 아주 잘 놀아요. 그리고 한 자매는

평범한 주부 네 자매를 데리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제자훈련 하는데 4시간 5시간동안 함께 하면서 그들이 바뀌는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라하는 말씀이 실감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바꾼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 1기 수료 하는 가운데 한 자매가 간증을 하였습니다. 신학교 졸업한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가 성격이 안 좋으면서 부부싸움 너무 많이하였습니다. 성격이 대단해 남편이 하나 던지면 이 자매는 두 개 던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하고 이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제자훈련을 시작한 이후로 한번도 남편하고 안싸웠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루는 여보 우리 너무 심심하다 싸우자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변하는거 정말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변화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품과 생각과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 모시고 사는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하고나니 참 많은 동역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제자훈련 받은 동역자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다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훈련 한다고 다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제자훈련 하면 교회 성장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 된 영혼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전도속에 광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전도폭발 훈련하는 우리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도폭발 훈련하다보면 전도하다보면 기도도 많이 하고 섬겨야 하고 전도할려고 하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고 제시할 때도 현장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교인들 가운데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 속에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광장히 훌륭한 영적인 군사가 됩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살아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전도 폭발 받고 현장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열매 없이도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제가 전도폭발 훈련 받고 와서 제일 첫 번째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듣는 자매가 쉴데 없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터리로 많이 알아 질문이 많습니다. 이 자매에게 첫 번째 복음을 제시

할 때는 결실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3개월 후 교회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나니깐 자기가 들었던 복음이 계속 생각이 나서 또 하리가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생각나는게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이었다고 합니다. 이 분이 지금은 우리 교회 순장 총무 섬김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전도 제일 많이 해 1년에 30명을 전도합니다. 전도를 제일 열심히 잘 합니다.

목회자가 전도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혼구원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영혼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 하신 목적이 영혼구원입니다. 그게 빠지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단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삼으라하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인자가 온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것이 아니라.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섬김으로 영혼을 구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제자는 섬김의 정신으로 가득차 있어야 합니다. 제자는 영혼에 대한 열정과 섬김의 인자로 가득차야 합니다.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직분은 섬김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직분은 전부 권세 부리는 직분이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깨뜨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문화 서열문화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힘등짐이 많습니다. 성경은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자가 왕입니다. 직분도 짐사 의미의 보편 종, 식탁을 치우는 사람입니다. 직분의 의미를 다 살펴보면 전부 다 종을 의미합니다. 모든 직분이 그래요 모든 직분이 섬김의 직분입니다. 직분은 베풀로 준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원하면 교회 전체가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들도 섬겨야 합니다. 옛날처럼 시키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우리교회 순장들은 평신도들이 헌신적으로 섬깁니다. 놀라운 것은 순원들을 향해서 극히 섬기는데 순원들이 순장을 존경합니다. 그들의 헌신적이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베푸는 모습을 순원들이 그대로 따라 배웁니다. 순장을 존경하고 또 순장이 되어서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행동합니다. 직분은 결코 베풀이 아닙니다. 직분은 섬김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걸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제184회 경기노회 신임원



노회장 최종태 목사

- 노 회장 최종태 목사(강서중앙교회)
- 부노회장 곽효상 목사(대은교회)
- 부노회장 한영복 장로(목양교회)
- 서 기 정현욱 목사(예정교회)
- 부 서 기 조성환 목사(종암중앙교회)
- 회록서기 최승범 목사(새안암교회)
- 부회록서기 박재경 목사(예담교회)
- 회 계 한광옥 장로(종암중앙교회)
- 부 회 계 하영선 장로(종암중앙교회)

개신대학원대학교 제2회 개신세미나 '목회를 말한다' 성황리 개최



지난 5월 12일 제2회 개신세미나가 개신대학원대학교 7층 대예배실에서 진행되었다. 배종열 교무처장의 사회로 개신총회 서기 하급식목사가 기도하고 김광채 전 총장이 이사야 6:1-13절 말씀으로 "이 땅의 그루터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김광채 교수는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이미 세속화가 진행될 대로 진행된 교회로 보고 있으며 세속화된 교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하며 개신대학원대학교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능력이시기에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으므로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 곧 그들이 바로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일 것"이라고 설교하였다.

2부에서는 조성현 총장이 개신대학원대학교 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조성현 총장은 현재 개신대학원대학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뜻 깊게 잘 발전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학교의 학위 프로그램과 행정체계를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역설했다.

제3부에서는 평택대광교회 배창돈 목사의 "목회를 말한다"의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배창돈 교수는 "목회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면 쉽다고 강조하며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나뉘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목회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를 통하여 계승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창돈 목사의 열정적인 목회에 대한 강의는 참석자들이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으며 큰 도전을 주었다. 참석자 전원 2시간 가까이 강의의 진솔한 강의에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점심식사는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제공하였다. 참석자들은 목회에 큰 도움이 되었고 많은 도전이 되었다고 말하며 이런 세미나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며 개신대학원대학교가 이렇듯 좋은 목회정보를 제공하는 센터의 기능을 하여 많은 동문들에게 목회의 도움을 주고 큰 힘이 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개신세미나 설교문



김광채 교수

1 웃сия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웃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 서로 찬양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4 이같이 찬양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5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보다 나여 말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 6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제로 단에서 취한 바 된 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거되었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8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9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11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12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 그 중에 심분의 일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는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사람들은 오늘날을 '위기의 시대'라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 재해 때문에 느끼는 위기가 있습니다. 거기가 경제 불황이나, 전쟁과 같이 우리 인간 스스로가 초래한 위기도 있습니다. 어디 세상에만 위기가 있습니까? 교회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혜성 같이 등장한 미래학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최 아무개라고 하는 그 학자는 종신대 출신의 현직 목사입니다. 최 목사는 신학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가, 신학 대신 미래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미래학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20 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책 제2권도 나왔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앞으로 한 세대 안에 한국 교회는 교인수 면에서 반토막이 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만약 이 예측이 현실이 된다면, 한국교회 교인수는 2050년 경 300만 내지 400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위기는 이렇게 양적인 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질적인 면에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우리 개신대학원대학교 출신인 정 아무개 목사가 쓴 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길 잃은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책 서문 첫머리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문을 쓰는 지금도 한국교회는 대령교회와 스타 목사들의 추문이 파리에 파리를 몰고 드러나고 있다. 밖에서도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지만, 교회 내부에서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교회의 개혁을 향한 외침이 외부에서 들려오는 것과 내부에서 소리치는 것이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세상과 다른 독특한 곳이어야 하는 교회가 세상 시각으로 쉽게 판단되고, 그들의 판단이 교회 개혁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곳에서의 외침과 구별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이 글에서 보듯, 이 책의 저자는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이미 세속화가 진행될 대로 진행된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세속화된 교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이사가 선지자는, 자기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육신적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귀머거리와 장님이 된다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

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앗수르에 망했습니다. 수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조차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이사야는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본문 8절을 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선지 생도 여러분! 여러분도 창년 이사야처럼 주님의 소명을 받았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런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 질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대답이 얼마나 엄중한 대답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온갖 고생과 수고를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대답 - 그러한 대답을 여러분은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길이,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라면, 주님의 종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곳이었습다. "물론 동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다. 그런데 이제 그 동산은 황무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거의 다 말라 버렸습니다. 말라 버린 나무는 베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눈에는 그루터기가 보였습니다. 그루터기 자체만 보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눈은 그들 사이에 좌정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카두쉬, 카두쉬, 카두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의 귀에는 천사들의 이러한 합창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젠가 이 황무한 땅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 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수많은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움틀 것이다. 그리고 황무지가 잠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개신대학원대학교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 - 그들이 바로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일 것입니다.

조성환 담임목사님 미국 낙스 신학대학교 명예신학박사학위 수여를 축하드립니다

(KNOX THEOLOGICAL SEMINARY)

(HONARY DOCTOR of DIVINITY)



대한예수교 중앙종교회 장로회 중앙종교회 JONGAM JUNGANG PRESBYTERIAN CHURCH

섬기시는 분들

- 원로목사 조경대
- 담임목사 조성환
- 부 목사 안재인 고태성 나경훈
- 협동목사 조성현 조재천 노원석 김구원 배종열
- 교육목사 황금주
- 여전도사 김형자 안호숙
- 교육전도사 김아론 류태욱
- 원로장로 진병도 김성유 황호연
- 시무장로 진왕수 최삼봉 한광옥 조동일 김영수
- 하영선 김찬중 김동균 김형주 조은철
- 협동장로 김공대



조성환 담임목사

한기총, 동성애 축제·봉은사역명 관련 서울시에 항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22일(금) 오후 서울시청을 방문해 박원순 시장과 면담했다. 한기총에서는 중경대표회장 이영규 목사, 명예회장 이강령 목사, 서기 황덕광 목사와 총무 윤덕남 목사가 배석했다.

동성애 퀴어축제와 관련하여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퀴어축제에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것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에서 시민인권관장을 만들 때 소수자를 명기하는 부분을 채택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현장을 서울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면 좋겠다. 서울광장 사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하셔는데,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바뀌었다. 서울광장은 누구나 와서 어떤 정치적·이념적 주장을 해도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와서(집회를) 할 때, 그 다음 날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사용 신청을 해도 받을 수밖에 없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경대표회장 이영규 목사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누구든 신청을 하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조례가 되어 있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퀴어축제라고 해서 나

체가 되어 돌아다니는 것을 방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볼 때 큰 열려가 된다. 서울광장 사용에 대한 여과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신고와는 별도로, 행사 내의 문제점은 법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봉은사역명 문제와 관련,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실제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코엑스역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코엑스에서는 토지의 일부도 공여했는데도 불구하고, 120ml나 떨어진 봉은사역으로 결정된 것은 석연치가 않다.

이 외에 한기총 측은 8월 15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릴 광복 70주년 기념 8.15 대성회와 국민대회합대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했다. 크리스천투데이 기사 참조

광신대학교 제2회 동문의 날 행사



제2회 광신대학교 총 동문의 날 행사가 28일 광주 소재 광신대학교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김광현 목사(실무준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최광훈 목사의 기도와 이성순 원장(유교과 동문회장)이 봉독한 예레미야 1:1-3절 말씀을 통하여 소감석 목사(명예준비위원장, 새에덴교회)는 “메이저 동문이 되라”고 설교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특별기도는 ‘광신대(총장, 교직원, 학생) 발전을 위하여’ 김경윤 목사, ‘광신동문회(소회)와 회원들을 위해’ 공학석

목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 남 목사가 각각 기도했다.축하인사 순서에서는 동문회장 전주남 목사의 인사와 광신대학교 정구남 총장과 박덕기 목사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축하에는 정용환 목사, 남종성 목사, 나희수 목사 등이 각각 말하며, 축하하였다. 광고에는 장성길 목사가 맡았다. 예배는 김경중 목사(중경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제2회 동문의 날 행사가 즈음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리폼드뉴스 기사 참조

한기총 이단검증특위, 전문위원 위촉

통합·백석·기감·기성·기하성 등에서 파송한 이들로 구성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 이단검증특별위원회(위원장 오관석 목사)는 22일(금) 오후 2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26-3차 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교단에서 파송한 전문위원들이 함께 참석해, 앞으로의 검증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위원장 오관석 목사가 주재한 회의에서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이단검증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회의한 내용은, 이단검증특별위원들이 검증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준비 및 제공하는 것과 여기에 참여한 전문위원들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검증하여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 검증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검증연구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단검증특별위원회는 전문위원으로 기독교한국침례회 김형목 목사(성지교회 담임),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영석 교수(합성대학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순복음) 김호성 목사,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장계은 교수(서울기독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장동민 목사(백석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구춘서 교수(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재정 목사(익산 삼광교회)를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그리고 추후 합동 위촉 증신대 박용규 교수와 장신대 이호익교수등 몇 사람을 더 추가할 수

있음을 밝혔다.

전문위원을 대표하여 인사한 구춘서 교수는 “한국교회를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기관들이 나누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새롭게 일치하고 협력하는 모양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대의명분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교단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그 입장을 가지고 활동을 하되,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확인한다고 하면 참여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라고 교단에서 주문했다. 기존 자료 외에 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활용해서 연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구 일정의 건(예정)에 대해서는 사정에 따라 전문위원들이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9월 각 교단 정기총회가 있기 전에 결과가 각 교단으로 전달되어 한국교회가 일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추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위원 박중선 목사가 기도했고, 위원장 오관석 목사는 장문 25장 13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회의는 위원 엄기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크리스천투데이 기사 참조

한교연 양병희 대표회장, 서울시청 앞 1인 시위

“동성애 축제 승인, 법적 책임 묻고 표로써 심판할 것”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가 동성애 문제와 관련,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의 태도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26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 앞에서 진행했다. 양 대표회장은 “6월 9일, 이곳 서울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퀴어축제가 열린다”며 “이는 숨어서 동성애를 즐기던 자들이 백주에 서울 한복판에 몰려 나와 자기를 성 취향의 정당성을 드러내 알리고, 동성애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천투데이 기사 참조

PCUSA, ‘동성결혼 수용’ 개정안마저 결국 통과

총회 결의 이어 노회 투표서 과반... 21일부터 발효

동성애는 멸망을 부르는 이름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인 미국장로교(PCUSA)가, 교회 내에서 게이와 레즈비언 등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015년 3월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PCUSA는 지난해 6월 총회에서 전통적인 교단법 중 결혼에 대한 정의를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수정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노회 투표에 부치기로 했었다.

노회 투표가 진행되는 내내 찬성표가 반대표를 압도하는 등 일찌감치 개정안 통과가 예상된 가운데, 17일 PCUSA는 마침내 172개 노회를 중 찬성표가 많은 곳 86곳을 넘어 과반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회의 규례법 중 일부로 포함되며, 오는 6월 2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목회자들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에서 동성결혼 주제를 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현재 미국 내 칼럼비아 특별구와 36개 주에서는 이미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The Presbyterian Outlook의 레슬리 스캐플론은 “기독교적인 결혼의 정의와 관련한 법적 용어를 바꾸는 것은 총회의 승인 및 노회의 다수결 투표로 진행된다. 또 결혼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문구를 교단법에 삽입하는 것은 교단에 속한 많은 노회에(현지시간) 보도했다.

PCUSA는 지난 2010년 성 경령이 없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성직 임명을 허용하기로 결정, 이에 반대한 150개의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로마가톨릭과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결혼을 오직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으로 보는 전통적 견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영국성공회,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 그리스도연합교회 등은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미 연합감리회를 비롯한 다른 주류 교단들은 동성결혼 허용과 관련된 논쟁을 진행 중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에 대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영국성공회에서 진행됐던 재산권 분할 및 소송이, 이제서는 미국의 장로교회를 가운데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

개신대학원대학교의 교훈은 ‘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입니다. 본교는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추구하며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살리는 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목회’를 실현하는 일꾼을 양성합니다.

우리 학교는 목회학석사(M.Div) 이외에 특성화된 여러 학위과정을 모집합니다.

설교주해를 위한 성경신학 석사 및 박사

사모, 평신도를 위한 상담, 코칭, 사회복지, 기독교교육 석사 및 박사

직장인을 위한 야간 목회학 석사

개신대학원대학교 2015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전형	1 차	2 차	3 차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6. 8(월) ~ 6. 29(월)	7. 1(수) ~ 7. 20(월)	7. 23(목) ~ 8. 18(화)
면접 및 입학시험	6. 30(화) 9:30am	7. 21(화) 9:30am	8. 19(수) 9:30am
합격자 발표	7. 2(목)	7. 23(목)	8. 21(금)

NAVER 개신대학원대학교 검색



개신대학원대학교 Reformed Graduate University 142-810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235(미아동 203-8) 235 Dobong-Ro, Gangbuk-Gu, Seoul, 142-810 Korea Tel 02)945-0910 /Fax 02)945-0143 /www.rts.ac.kr



제1회 전국 교역자 부부 하기수양회

◎ 일 시 : 2015년 6월 22일 (월) ~ 24 (수)
 ◎ 장 소 : **켄싱턴리조트 설악비치**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동해대로 4800)
 △ 대 상 : 교역자(목사, 준목, 전도사) 부부, 총회 및 노회임원, 기타
 △ 등 록 비 : 1인당 10만원 (당일 12만원)
 부부1실 28만원 (당일 30만원)
 △ 등록기간 :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개인 및 단체 등록
 △ 계 좌 : **외환은행 630-009626-97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신총회**
 입금시 교회명과 참가자 성함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총회 사무실 전화 02-3674-7008 09

주제 : “내 안에 거주하라” (요15:7)

출발지	운행경로	소요시간
서울	경부고속도로->신길IC->호법IC->영동고속도로->하조대IC->7번국도->양양->속초->고성방향으로 직진->켄싱턴리조트 설악비치	2시간 50분
	홍미사리->팔당대교->양수리->양평->홍천->인제->원주->용대리->미시령터널->속초->고성방향으로 직진->켄싱턴리조트 설악비치	2시간 30분
	강일IC->춘천고속도로입구->남춘천IC->동춘천IC->인제->미시령터널->속초->고성방향으로 직진->켄싱턴리조트 설악비치	2시간 30분
부산	경부고속도로->대구->대전->충부고속도로->호법IC->영동고속도로->하조대IC->7번국도->양양->속초->고성방향으로 직진->켄싱턴리조트 설악비치	7시간
대전	충부고속도로->호법IC->영동고속도로->하조대IC->양양->속초->고성방향으로 직진->켄싱턴리조트 설악비치	4시간
광주	호남고속도로->회덕IC->경부고속도로->충부고속도로->호법IC->영동고속도로->하조대IC->양양->속초->켄싱턴리조트 설악비치	5시간

교통편	터미널	운행구간	운행시간	배차 시간	소요 시간	요금표	연락처 / 바로가기
고속버스	강남터미널	강남-속초	06:00(첫차) 23:30(막차)	30분	2시간 40분	18,100원 / 19,900원(심야)	1688-4700 / www.terminal.co.kr
시외버스	동서출터미널	강변-속초	06:25(첫차) 23:00(막차)	30분	2시간 10분	17,300원 / 19,000원(심야)	1688-5979 / www.ti21.co.kr

*속초 고속 터미널에서 1번 고성행 버스(20분 배차 / 25분 소요)
 *속초 시외 터미널에서 1번 고성행 버스(20분 배차 / 15분 소요)

시간	날짜	6월 22일 (월요일)	6월 23일 (화요일)	6월 24일 (수요일)
06:00~07:00	환 영 합 니 다 !	기상과 세면		
07:00~09:00		아침식사		
09:00~09:30		경배와 찬양		
09:30~11:00		오전특강1 (강사: 조성현총장, 개신대학원대학교)	오전특강2 (강사: 손석태 교수)	
11:00~11:30		노회별자유식사	폐회예배 (강사: 박찬권 목사)	
11:30~13:00		친교 시간	각 노회별 출발	
13:00~17:00		등록 및 숙소 배정	주변관광	
17:00~18:00		개회예배 (강사: 박 용 목사)		
18:00~19:00		저녁식사		
19:00~19:30		경배와 찬양		
19:30~21:30	저녁예배 (강사: 배창돈 목사)	저녁예배 (강사: 배창돈 목사)		
21:30~22:00	함께 기도합니다.			
22:00	친교 및 취침			

대한예수교 개신총회

대회장: 박용 목사 준비위원장 하금식 목사
 진행위원장 김순모 목사 재정위원장 최승범 목사